

시진핑 삼농사상의 형성과 발전:

탈빈곤에서 생태문명 건설까지

박경철*

목 차

- I. 서론
- II. 시진핑 삼농사상의 형성 배경과 방향
- III. 시진핑의 삼농사상의 세부 내용
- IV. 시진핑의 새로운 삼농사상: 생태문명 건설
- V. 결론 및 시사점

한글초록

1990년대 말부터 정식으로 제기된 삼농문제는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에서 처음으로 중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중국의 삼농문제는 2003년부터 <중공중앙 1호문건>으로 채택되어 후진타오 집권 10년 동안 삼농문제를 중공중앙의 제1의 과제로 채택해 많은 개혁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그 후, 후진타오의 뒤를 이은 시진핑 또한 그의 집권 이후 줄곧 <중공중앙 1호문건>을 통해 삼농문제를 당중앙과 국무원이 가장 우선

* 충남연구원 지역문화연구실 책임연구원

본 연구는 충남연구원 2018년 기본과제(18GI025)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이다. 유익한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시진핑이 왜 삼농문제를 중요시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구체적으로 삼농문제 해결에 대한 그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삼농문제 해결을 넘어 최근 그가 주장하는 생태문명 건설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은 후진타오의 삼농정책을 계승해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촌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일방적인 경제성장이 목표로 하는 성장이 아닌 환경보존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국 삼농발전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시진핑, 삼농, 합작사, 향촌건설, 생태문명

I. 서론

중국은 농업대국이다. 광활한 대지, 수억의 농민인구,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늘 농민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중국의 공산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공산당이 농민과 농업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도시의 자본가와 결탁한 국민당과는 달리 광활한 대지, 수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농촌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혁명을 시작해 결국 중국 대륙을 차지했다. 비록 지금은 도시화가 절반을 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인구의 절반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고 거기에 도시로 나간 농민공까지 더하면 중국인구의 절반 이상은 농민·농촌과 관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문제인 삼농의 문제

는 현대 중국의 최대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인구 14억여 명의 인구대국인 오늘날의 중국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대 현안인 지금, 삼농문제는 비단 농업, 농촌, 농민의 범위를 넘어 중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삼농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이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 즉 삼농문제가 부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신중국 성립 이후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는 늘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문제는 농민의 문제라는 점을 포착해 농민을 동원해 공산혁명을 이룩했지만 신중국 성립 이후에는 농업보다는 공업을, 농촌보다는 도시를, 농민보다는 도시민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마오쩌둥은 혁명에 성공했으나 무너진 경제기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공업화 정책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소련에 가서 직접 배운 스탈린식의 계획 경제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공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19세기 초 아편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서구 열강과 일제의 침략으로 국가적 수난을 겪었던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된 동서 냉전체제에 적극 맞서는 한편, 그동안 겪었던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업화, 도시화 정책을 우선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공업화, 도시화 우선 정책을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마르크스의 역사변증법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자본축적이 이뤄진 이후 실현되는 사회체제이나 당시 중국은 전쟁의 폐허로 인해 자본축적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중국은 농업과 농촌을 ‘내부 식민지화’해서 공업화를 위한 자본 착취를 시작한 것이다. 일례로, 정부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싸게 사서 공업부문에 종사하는 도시 노동자에게 싸게 제공한 것이다. 소위 협상가격차(銜狀價格差)로 불리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농산물과 농산물 가격을 정부에서 엄격히 통제해

농민의 희생을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의 사회적 통제도 강화했다. 농민은 정부의 허락 없이는 거주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즉, 농민의 도시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해 농민의 이동권을 박탈했다. 중국의 거대 인구인 농촌인구는 경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공업화 우선 정책에 따라 도시 노동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문제는 1950년대에 실시된 공업화와 도시화 우선 정책이 이후에도 고착화되어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냉전체제하에서 마오쩌둥은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병영국가로 만들고 단시일 내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조급증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농업합작화운동과 대약진운동이 무참히 실패해 농촌에서 수천만 명의 농민이 굶주림으로 죽은 대참사가 발생했지만 중국의 정책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마오 시대를 마감하고 개혁개방을 시작한 덩샤오핑은 한때 농촌공업화를 위해 향진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후 도시 위주의 발전 정책의 주도로 성장이 더디지면서 이마저도 실패해 농촌은 그야말로 황폐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많은 농민이 노동자로 변신해 도시로 흘러들어갔지만 그들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호구제도에 의해 도시 노동자가 되어도 도시주민이 되지 못하는, 소위 농업호구를 가진 농민공(農民工)으로 살아야 했다.

농민공의 사회경제적 차별은 이미 많은 글과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그 주요한 내용은 여전히 농민은 중국 공민으로서의 대우보다는 식민지의 '식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시에서 일하지만 그들은 도시 호구(정확히는 비농업호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가 갖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와 농촌

을 오가며 힘든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제기된 농업, 농촌, 농민 문제의 심각성은 인민들 사이에서 공명되어 점차 확산되어 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1990년대 말 중국인민대학 원테쥔(溫鐵軍) 교수는 ‘삼농문제’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이를 국가 의제화 할 것을 주장했다. 다행해 2002년 집권을 시작한 후진타오(胡錦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삼농문제를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重中之重) 과제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후진타오 정부는 중국의 삼농문제를 2003년부터 <중공중앙 1호문건>의 핵심 의제로 채택해 그의 집권 10년 동안 많은 개혁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2005년에는 농민들의 원성 대상이었던 농업세를 폐지했고, 2006년에는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시작했으며, 2007년에는 농민전업합작사법을 시행해 농업의 현대화와 농민의 조직화를 도모했으며, 2008년에는 토지법을 개정해 농지의 자유이동을 확대했다.(박정철, 2018: 257)

이후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시진핑이 후진타오의 삼농정책을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시진핑 또한 삼농정책 해결을 당중앙과 정부의 제1순위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는 후진타오에 이어 매년 <중공중앙 1호문건>을 삼농문제로 설정하고 각급 당조직과 정부기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집권 전반기인 2012~17년인 5년 동안 줄곧 삼농문제를 <중공중앙 1호문건>으로 설정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혹자는 삼농문제에 대한 시진핑의 이러한 태도가 의외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전임자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차원을 넘어 정치가로서 그의 삶의 배경을 보면 의외의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기층으로 들어가 직접 농업, 농촌, 농민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누

구보다도 삼농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시진핑이 왜 삼농문제를 중요시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구체적으로 삼농문제 해결에 대한 그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삼농문제 해결을 넘어 최근 그가 주장하는 생태문명 건설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시진핑 삼농사상의 형성 배경과 방향

1. 시진핑 삼농사상의 형성 배경

시진핑의 삼농사상은 크게 마르크스·엥겔스의 소농경제, 도농관계, 조직화 발전 사상, 레닌의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관계의 중시, 농민 개인이익 중시 이론 등 서구 사회주의 사상가의 삼농사상과 마오쩌둥의 농업호조합작운동, 덩샤오핑의 향진기업 발전, 후진타오의 신항촌건설 등 중국의 근현대 역대 지도자의 삼농사상에 자신이 일찍이 산시, 허베이, 푸젠, 상하이, 당중양 근무 시 실행했던 경험을 결합해 독특한 삼농전략 사상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常君麗·高君, 2016: 45) 시진핑은 이처럼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서구사상과 중국의 앞선 지도자의 삼농사상을 계승하고 있지만 농촌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고한 삼농사상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시진핑만큼 삼농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도자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표 1〉 주요 사회주의 사상가와 지도자의 삼농사상

인물	주요 삼농사상
마르크스, 엥겔스	소농경제, 도농관계, 조직화 발전
레닌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관계, 농민 개인 이익
마오쩌둥	농업호조합작운동, “八字憲法”
덩샤오핑	향진기업 발전, 농촌도시화 추진
후진타오	세부담 경감, 농민전업합작사, 사회주의 신항촌건설
시진핑	농업합작화, 삼위일체, 생태문명

주: 常君麗·高君(2016). p.45를 참고해 재구성함.

시진핑은 그의 아버지 시중싌(習仲勳)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중국 혁명의 근거지 중의 하나인 서북부에서 활동할 당시 그곳에서 머물면서 중국 농민들의 처참한 현실을 통감하기 시작했다. 신중국 성립 이후 시중싌은 중앙으로 진출하지만 곧 이어진 문화대혁명 초기인 1969년 반당분자로 몰려 실각되자 그는 아버지의 고향지역으로 하방을 요청해 지식청년으로서 산시성(陝西省) 옌촨현(延川縣) 원안이공사(文安驛公社) 량자허대대(梁家河大隊)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며 삼농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시진핑이 산시성으로 내려가 처음부터 적응을 한 것은 아니었다. 베이징의 최고위 지도자들이 거주하는 중난하이(中南海)에 살다가 허베이성의 최하층의 농민들이 기거하는 토굴에서 살게 된 시진핑은 처음에는 다소 낭만적인 생각으로 농촌으로 내려갔지만 이후 농촌의 비참한 현실에 자신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농민들의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중노동에 그 자신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방한 지 3개월 만에 그곳을 탈출하기도 했다. 무작정 베이징으로 온 그는 베이징 호구가 없었기 때문에 베이징시정부에 가서 신고를 하자 시정부는 그를 “학습반”에 편입해 베이징시 하이디엔구

(海澱區)의 하수관 매설작업 인부로 다시 중노동에 시달렸다. 그때 시진핑은 량자허에서 도망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중국 문명을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하층의 빈민으로 살아가는 농민이 있는 농촌지역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¹⁾ 량자허로 돌아간 시진핑은 그곳 농민들과 어울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다. 량자허의 주민이었던 뤼(呂) 씨 노인은 당시의 시진핑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당시 열여섯 살의 시진핑은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베이징의 귀공자였어요. 산시성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해 말이 잘 안 통했고,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며, 게으르고 오만한 지식청년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자 베이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홍위병의 손바닥 안이었지요. 다시 구금돼 몇 달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족들의 권유로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년 뒤 시진핑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²⁾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이 1976년에 막을 내리자 시진핑의 하방도 끝나게 되어 그는 중국의 명문 칭화대학(清華大學)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다. 졸업 후에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의 비서로 배속되

1) 김용옥의 해석에 따르면, 시진핑이 다시 량자허 농촌으로 돌아간 이유는 그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당시 중국이라는 문명의 근저를 형성하고 있었던 농민의 삶이야말로 자신의 실존이 던져져야 할 세계라는 것, 그 “세계 내존재”로서의 자기의 삶의 재건이야말로 자기가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될 “경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그가 량자허 농촌으로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이모부의 충고가 컸다고 한다. 그는 조카 시진핑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중의 바다 속에서 살지 못한다면 장차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와 엄마도 섬서의 농촌에서 민중과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혁명의 위업을 달성했다.”(김용옥, 2016: 205)

2) 김기수, 2013, 『시진핑의 리더십』, p.5 내용 재구성.

어 일했다. 그러나 그는 출세가 보장된 안정된 자리를 떠나 1983년 허베이성의 농촌지역인 정딩현(正定縣)으로 내려가 그곳의 농민들과 함께 하면서 인민의 빈곤 문제, 즉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가 혁명의 시기 아버지를 따라 중국 서북부 농촌에서 생활했을 때 경험했던 중국 인민들의 빈곤의 문제, 그리고 지식청년으로서 산시성의 한 인민공사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중국 인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허베이성 정딩현의 젊은 지도자로서 농촌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³⁾했던 시진핑은 그 후 중앙으로부터 그의 공적을 인정받아 이후 푸젠성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7년 동안 간부로 일하며 삼농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가 푸젠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시도했던 농촌시장화 노력, 빈곤 문제 해결 노력, 그리고 농촌 발전 구상은 이후 그의 칭화대학 마르크스학원의 박사논문 〈중국농촌시장화건설연구〉(2001)로 완성되기도 했다. 삼농 문제에 대한 시진핑의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시진핑 삼농사상의 기본 방향

시진핑의 삼농사상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그가 새로운 시대 중

3) 시진핑은 일찍이 허베이성 정딩현에서 근무할 때인 1983년에 옥수수 가공 관련 연수단을 이끌고 미국 아이오와주 지역을 시찰할 정도로 개방 의식과 전략적 안목이 있었다.(박경철, 2018: 258) 그 후 시진핑은 부주석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그가 정딩현 시기 농민들과 함께 시찰했던 미국 아이오와주 시골마을인 머스커틴을 27년 만에 다시 찾아 추억을 되짚고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국이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로 설정한 ‘중국몽(中國夢)’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은 《復興之路》 전람회 참관 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개의 백년 목표”, 즉 “중국몽”의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그것은 2021년에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최종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강한 국가, 민족의 진흥, 행복한 인민을 실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가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를 견지하고, 민족정신을 흥양하고 중국의 역량을 결집해 실현하며 그 실현 수단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문명의 오위일체(五位一體) 건설이라고 했다.(常君麗, 2016: 2) 시진핑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성장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 격차, 지역 격차, 도농 격차, 민족 갈등, 그리고 심각하게 파괴된 자연환경을 극복해 미래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인민은 여유롭고, 자연환경은 쾌적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이 주창하는 삼농사상도 중국몽과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중국이 부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이 부강해야 하고, 중국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농촌이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며, 중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촌이 잘 살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산업화가 촉진되고 도시화가 확대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14억 인구의 식량문제가 중요하고 국토의 대부분이 농촌이기 때문에 삼농은 여전히 그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삼농 문제 해결은 국가부강, 사회조화, 경제발전 그리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장기적 대계와 관련한다. 당중앙의

제18차 인민대표대회 이후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와 중국공산당의 역대 지도자의 “삼농” 사상의 계승을 토대로 중국의 “삼농” 발전 상황을 대해 이론과 실천을 결합해 시대에 맞는 일련의 새로운 사상, 관점, 전략을 제시했고,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답고, 농민이 잘 사는 목표인 “삼농” 사상체계를 수립해 새로운 시기 전면적인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준거를 제공했다.(王喆芑·李德芝·龐麗鈞, 2017: 15)

시진핑의 삼농 문제 해결의 세부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강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개혁에 근거하고, 2) 정책 지원을 동력으로 삼고, 3)과학기술을 해결책으로 삼아야 한다. 농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혁 조치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동력으로 각종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농업 생산체계를 혁신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아름다운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2)생태를 보호해야 하며, 3)향촌문명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생태와 환경을 중요시하는 향촌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잘 사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혜농부민(惠農富民) 정책을 실시하고, 2)빈곤구제 개발정책을 실시하고, 3)취업전환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빈곤선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 구제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농촌에 남아있는 유희 인력에 대해 적절한 취업전환 교육을 통해 비농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으로 시진핑의 삼농사상, 즉 농업, 농촌, 농민의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살펴보았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시진핑 삼농사상의 세부 내용

1. 농업 부문: 중국이 강해지려면 농업이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

중국은 농업대국이자 인구대국이다. 막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는 문제는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최대 관심사항이다. 신중국 성립 이후 추진된 농업합작화 운동과 대약진운동이 실패해 결국 대기근(1959-61)이 발생하면서 비공식 통계로 약 3,000~4,000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할 때 중국은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혁명의 주역은 농민이었지만 정치의 실패로 인해 그들은 가장 큰 희생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 지도자들은 대기근의 트라우마 때문에 중국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왔다. 농업생산성을 올려 식량을 자급해 인민들이 배불리 먹는 사회(溫飽), 나아가 어느 정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小康社會)를 이상적인 사회로 꿈꿔왔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농업의 특징이 소농경제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 일본 등과 같이 동아시아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소농경제의 특징은 농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평균 약 1.3ha의 적은 면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2~3번의 작물을 재배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중국 농업의 또 다른 특징은 개별 농가단위 경영체이지만 농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별 농가단위 경영은 어느 정도 농민의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경영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개별 농가경영으로는 농기계 구입도 어렵고 집중적인 농업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개별 농가로는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농업의 특징은 마을 주민 간 상호 협력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협력체계를 만들 수는 없다. 이미 중국 사회주의 성립 초기

실시된 농업합작사운동(호조제, 초급농업합작사, 고급농업합작사, 인민공사)이 실패한 것처럼 농민의 자발적 합작체제를 무시한 협력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이후 당과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추진된 인민공사 체제를 해체하고 토지를 개별 농가에 나눠주는 농가생산도급제를 실시해 농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농지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한 농가는 자신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나갔다. 중국 전체적으로도 한동안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어 배불리 먹는(溫飽)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농가단위 경영체제는 중국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화, 개방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한계를 맞게 되었다. 개별 농가단위로는 시장화, 개방화 특히 국제 무역체제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 농산품은 이미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상품성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은커녕 수입 농산물과도 경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화, 개방화 시대에 중국 농업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농가의 조직화이다. 즉, 기존에 생산단계에만 머물렀던 농업경영 형태에서 벗어나 여러 농가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생산을 도모하고 이를 공동으로 시장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후진타오 정부가 2007년 농민전업합작사법을 시행한 것도 농업조직화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시진핑 시기에 와서도 더욱 확대 강화했다.

陳林(2013)은 《시진핑 삼농전략 사상》에서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은 1990년 3월 장쩌민 주석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다: “중국사회주의 농업의 개혁과 발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도약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도약은 인민공사를 폐지하고 농가생산도급제 위주의 책임제를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많

은 진전이 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도약은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고, 사회적 수요에 맞게 생산하고, 적절한 규모화 경영과 집체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시진핑도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의 농협과 타이완의 농회를 조사해 보니 농민을 조직하는 것은 우리 당이 잘 할 수 있는 장점이다.”고 여겼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있게 “신형 합작화의 길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찍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에 농촌시장화와 농민조직화의 “삼위일체”라는 큰 구상을 제기하며 정부와 시장이 협력해 “대농정”과 “대농협”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常君麗, 2016: 2)

일찍이 시진핑은 2001년 그의 박사논문인 《중국 농촌시장화 건설 연구》에서 농민을 조직화한 농촌시장화 발전노선은 농민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국내외 시장에 진입해 농산품의 시장경쟁력과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농촌시장화는 농촌개혁과 발전의 기초이자 관건이라고 했다. 즉, 국제 농업협동조합과 농협조직이 갈수록 발전되고 있으나 중국 농민합작화는 이제 싹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합작화체계는 향후 중국 “삼농” 발전의 필연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시진핑의 “삼위일체”는 저장성 당서기였던 그가 2006년 1월 저장성 전체 농촌공작회의에서 제시한 농민전업합작사, 공급판매합작, 신용합작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당해 12월 루이안(瑞安)에서 개최된 성 전체 현장회의에서 다시 “삼위일체”에 관한 그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세 가지 합작조직의 일체화, 삼중의 합작기능의 일체화, 삼급 합작조직의 일체화를 의미한다. “삼위일체” 농업 신형 합작조직체계와 현대화 농업발전 노선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전업합작사, 공급판매사, 신용사 등 기층합작사의 연계를 강화해 금융, 유통, 과기서비스 등 영역 내 다층적

이고 종합적인 대합작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삼위일체” 신형 합작화 전략 사상은 선진국 농업발전 노선을 토대로 중국 삼농발전의 여건을 감안해 고안해낸 것이다. 이는 중국 중국특색 사회주의 “삼농” 이론에 대한 계승과 발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형 합작화 체계 건설은 중국 “삼농” 발전노선의 필연적 선택이라는 것이다.(常君麗·高君, 2016: 47)

이처럼 시진핑은 농업의 생산, 판매, 신용 방면의 합작화를 통해 삼농의 발전노선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합작의 형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농민 스스로 합작사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공동판매를 위한 합작사를 만들어도 도시의 판매망과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 신용 방면은 이미 금융 자본에 넘어가 농민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어렵다. 여기에는 농민이 신용대출에 필요한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닌 집체 소유라는 구조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시진핑의 농업합작화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농민 스스로 합작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민에게 토지 경영권을 보장하는 등 토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농민의 조직화를 강화해 중국에는 좀 더 튼튼한 농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농촌 부문: 중국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농촌이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 건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아름다운 중국의 개념은 시진핑

집권 초반기인 2012년에 열린 공산당의 제17차 인민대표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 말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생태문명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시진핑이 새로운 시대의 이념으로 제시한 생태문명 건설이 국가 지도 이념으로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중국몽’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했다.

시진핑은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활한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향촌에 주목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공산당 제18차 인민대표회의에서 제시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위한 새로운 이념과 방식이기도 하다. 즉, 중국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농촌이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그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 이미 후진타오 시기인 2005년 공산당 제16차 5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해 “생산 발전, 생활의 여유, 현대적 풍습, 향촌의 정비와 청결, 민주적 관리” 등 5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시진핑이 제시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사회주의 신향촌건설의 5대 전략 가운데 ‘향촌의 정비와 청결’과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반드시 외적인 청결과 경관의 아름다움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袁勤飛·徐海敏(2016, 24)의 설명에 따르면, 아름다운 향촌의 내재적 의미는 향촌인문의 아름다움, 문화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다. 즉, 아름다운 향촌은 향촌의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농촌의 다양한 유산들을 전승하고, 큰 건물을 없애지 않고, 옛집과 택지, 저수지를 충분히 이용하고, 역사적 기억과 지역 특색의 아름다운 마을을 발전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潘高鋒(2015)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의의로 크게 세 가지 사상을 강조했다. 첫째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생태문명 건설 발전의 객관적 요구라는 점이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서는 농촌의 생태문명 건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중요 내용이라는 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은 농업생산 발전과 생활의 여유로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농촌 환경과 현대적 생활 풍습까지 포함한다. 셋째,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한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의 자원과 환경을 크게 파괴하고 훼손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농촌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정책 의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농민 부문: 중국이 잘 살려면 농민이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

2013년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민이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향후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농민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농민을 잘 살게 하고, 농민을 높이고, 농민을 돕는 것이다.(常君麗, 2016: 1) 하지만 시진핑은 중국은 농업 대국이고 농민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농업인구를 잘 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 많은 인구를 농촌 내에서 농업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를 통해 부양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도시로 진출시키거나 농촌의 도시화를 통해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2004년 4월 9일 《之江新語: “삼농”에서 벗어나려면 “삼농”을 확실히 붙잡아라》에서 농민은 취업, 사회보험, 호적, 교육 등 도농분할의 체제 제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농촌의 잉여노동력의 신속한 진출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常君麗, 2016: 1) 도시민에게 유리한 취업구조, 각종 사회보험 혜택, 호적, 교육 등 방면에서 농민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농민의 도시 진출 혹은 농촌의 도시화로 이러한 여건 변화를 모색한 것이다.⁴⁾

이러한 변화는 이미 후진타오 시기부터 있었다. 후진타오 집권 초기인 2004년 제16차 3중전회에서는 “사람이 근본임을 견지하면서 전면적이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와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과학발전관을 제시했다. 2007년 중공 제17차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농촌잉여노동력에게 취업훈련을 강화해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을 추진했고, 제18차 3중전회에서는 개혁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문제를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농이원구조는 도농발전일체화를 제약하는 주요 장애물로 여기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적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공업으로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로써 농촌을 커버하고, 공업과 농업이 호혜적이며, 도농일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농관계를 형

4) 시진핑은 《之江新語: “삼농”에서 벗어나려면 “삼농”을 확실히 붙잡아라》(2007)에서 “농업수익을 올리고 현대화 농업의 길을 가는데 중국농업의 생산 경영 방식과 농산품 유통방식은 아직 낙후하고, 농촌의 도시화 촉진으로 현대화된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는 데 도시의 선도 능력이 약하고, 자금, 기초 시설, 공공서비스 투입구조가 불합리하다. 농촌노동력의 신속한 진출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취업, 사회보험, 호적, 교육 등이 기초가 되는 도농이원구조가 도농일체화 발전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성함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현대화 과정에 참여해 현대화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常君麗, 2016: 1)

앞서 설명했듯이 도농이원구조는 신중국 성립 초기에 공업화, 도시화 우선 추진 정책으로 농촌인구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의 결과물인데 이러한 구조는 개혁개방 이후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중국 농업, 농촌, 농민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박정철, 2017) 농업보다는 공업을 농촌보다는 도시를, 농민보다는 도시민 우선 정책으로 중국의 농업은 공업화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고, 농촌은 황폐화되었고 농민은 준 식민이 되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차별 정책이 농산물에 대한 협상가격차정책과 호구제도이다. 협상가격차정책은 농산물 가격을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이고 호구제도는 농민의 도시 이동을 철저히 통제해 공업과 도시민에게 그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었다.

이 때문에 후진타오 시기부터 도농이원화정책은 도농일체화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도시의 혜택을 농민들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의 통합, 각종 인프라 시설 설치, 호구제도의 부분적 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여전히 차별을 받았다. 물론 충칭시⁵⁾ 등 일부 지역에서 농민공을 도시호구로 전환하는 등의 사례도 있고 농민공에 대해 사회보험과 임금 보장 등의 정책들은 있었지만 농민공에 대한 차별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부모세대 농민공의 호구는 자녀세대에도 이어져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농민공의

5) 충칭시는 2010년 8월 1일 〈충칭시 도농 호적제도 개혁 총괄계획에 따른 농촌 주민의 호구 전환 실시 방법〉을 발표하고 충칭시 농민들의 호구를 개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허쉐핑(김도경 옮김, 2017: 208-220) 참조 바람.

자녀들은 그들도 농업호구이기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⁶⁾

이처럼 심각한 도시와 농촌 간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 정부에서는 신형 도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농촌도 도시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소도시를 건설하고 농촌마을도 산발적인 주택형태를 집약형으로 재편해 다층 건물을 짓고 거기에 문화, 복지, 의료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나갔다. 이러한 형태로 바꾸면 농민들이 굳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더라도 마을 혹은 가까운 중소도시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도시에 나간 농민공들도 귀향을 하더라도 낙후한 자신의 마을보다는 인근 중소도시에서 살면서 각종 창업과 취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최근 도시의 청년들이 농촌의 중소도시로 내려가 다양한 창업과 취업 활동으로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보도되기도 했다.⁷⁾

6) 최근 들어 도농이원구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글들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허쉐펑(何雪鳳)이 있다. 중국은 강력한 도농이원화 정책을 통해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을 막아 동남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빈민굴 현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번역되어 나온 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확실히 빈민굴이라 부를 만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중국에는 도농 이원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실패할 경우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이 있고 그들의 부모가 아직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도농이원구조가 도시 내의 이원구조 출현을 막아내고 있다.(허쉐펑 지음, 김도경 옮김, 2017: 87) 중국의 도농이원구조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중국정부가 신중국 성립 이후 줄곧 농민의 도시 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차별정책을 실시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차별이 자녀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7) 물론 신형 도시화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보도도 많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농민상루(農民上樓)’ 현상이다. 즉, 지방정부와 촌 간부들의 주도로 농촌마을을 주민의 동의 없이 혹은 거의 반강제 형태로 재편해 보통

4. 종합: 도시민 수준의 농민의 삶의 질 향상

앞서 시진핑의 삼농사상을 크게 농업, 농촌, 농민 부문으로 나눠 그 주요 사상과 내용을 설명했다. 이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진핑 삼농사상의 핵심 내용은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농업이 우선해야 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농촌이 우선해야 하고, 중국이 잘 살려면 우선 농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정책 실행 내용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시진핑 삼농사상의 핵심은 식량생산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당과 농민 간 협치를 통해 농민들도 도시민 수준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인구 대다수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거대한 인구를 안정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중국 지도자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상황에서 시진핑 또한 예외일 리가 없다. 그래서 그의 삼농사상은 그가 2012년 총서기 취임과 함께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며 화두로 꺼낸 ‘중국몽’ 실현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시진핑 삼농 사상의 내용

구분	핵심 내용	구체적 내용
1. 농업	중국이 강해지려면 농업이 반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기초지위를 안정화해 국가 식량안정 확보 -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 강화

1층 형태의 가옥을 없애고 다층의 건물을 지어 농민들을 이주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아파트와 같은 다층 건물에 사는 것은 여러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의 농민들은 신축한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박경철의 논문 “중국 농촌재편의 의의와 한계: ‘農民上樓’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2015) 참조 바람.

구분	핵심 내용	구체적 내용
	강해져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화된 농촌시장화 촉진 - “삼위일체” 신형 합작화 체계 구축 - “대농협”과 “대농정”을 통합해 추진
2. 농촌	중국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농촌이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기층당조직 건설 강화 - 당조직과 촌민 간의 협치 강화 - 아름다운 향촌건설 추진 가속화
3. 농민	중국이 잘 살려면 농민이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통합형 체계 구축 - 농민의 취업 전환 독려 - 도시민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진핑 총서기는 농을 중시해 근본을 확고히 하는 것이 인민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라도 농업을 소홀히 하고, 농민을 망각하고, 농촌에 냉담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삼농문제 해결을 시종 전체 공산당 업무의 가장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런 배경에서 13·5의 시작인 2016년 초에 나온 〈중공중앙 1호 문건〉은 6개 항목과 30개 세부항목에서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발전의 신이론을 통해 현대화농업을 서둘러 실행함으로써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표명했다. 특히 이 문건은 혁신, 협력,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이론을 확고히 해서 “삼농”의 새로운 난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吳宏耀·羅丹, 2016: 15) 이 같은 발전이론은 삼농을 단순히 농업생산을 통한 소득보장과 농촌의 환경개선,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을 넘어서 중국 전체를 지속가능한 국가체제로 나아가는 발전사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최근 들어 녹색과 생태문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삼농사상은 계속 진화한다고 할 수 있다. 생태문명에 관한 그의 구체적 사상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V. 시진핑의 새로운 삼농사상: 생태문명 건설

1. 생태문명 건설의 배경

시진핑 주석은 그가 저장성 당서기로 재임했던 시절인 2005년 8월에 처음으로 그의 생태문명 사상을 대표하는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 즉 ‘양산(兩山)’사상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는 저장성 안지(安吉)현 텡황핑(天荒坪)진 위(余)촌 방문 시 열린 좌담회에서 한 촌 간부가 오염을 발생시키는 광산을 생태관광지로 개발해 경관도 아름답고, 주민의 소득도 올리고, 사람들도 화합하게 됐다는 보고를 듣고 과거에는 녹수청산과 금산은산은 별개로 생각했으나 사실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금은보화)이라고 말했다.(郭占恒, 2017: 20) 그는 9일 후 저장일보의 《之江新語》란에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는 기고를 통해 “생태환경의 장점을 생태농업, 생태공업, 생태관광 등 생태경제의 장점으로 전환한다면 녹수청산도 금산은산으로 변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이 안지현을 방문한 것은 그 지역이 전형적인 빈곤현에서 부자현으로 탈바꿈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철저하게 파괴된 지역에서 생태복원을 통해 부유한 지역으로 탈바꿈한 모범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안지현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인 1980년대부터 지역 내 공장이 들어서면서 자연환경이 철저하게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원래 차와 대나무, 회전의자 등이 유명한 지역이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지역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안지현 정부는 대나무와 차밭을 없애고 그곳에 제지공장과 광산을 개발했다. 그 결과 1990년대부터 안지현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그 대가는 작지 않았다. 중국에서도 유명한 타이후(太湖)의 유역인 안지현의 하천은 오염이 심각해 사람은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발전도 좋지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따라서 안지현은 2000년대부터 생태현 전략을 수립하고, 2003년부터는 성 정부의 “천촌시범 만촌정지사업(千村示範萬村整治工程)”을 토대로 생태현 건설을 전면 추진해 30여 오염기업을 폐쇄했다. 이 중에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에서 가장 큰 제지공장도 포함된다.

이러한 생태현 건설을 토대로 안지현은 2008년 “중국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제시해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즉, 안지현은 이 지역의 농촌을 큰 범위로 기획하는 동시에 현의 경제발전 전체 기획, 생태문명 건설 기획, 신농촌 시범구 건설 기획 강요(綱要), 향(진)촌 발전 기획 등과 연계하는 한편, “일촌일품(一村一品), 일촌일경(一村一景), 일촌일업(一村一業), 일촌일운(一村一韻)”의 요구에 따라 《안지현 신농촌시범구 건설 기획 강요》, 《“중국의 아름다운 향촌” 행동 강요》, 《“중국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 전체 기획》 등 많은 기획을 하나의 이념으로 통합해 안지현을 아름다운 향촌으로 만들었다. 특히 안지현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레저농업, 향촌관광, 특색농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적극 추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郭占恒, 2017: 25)

안지현의 사례는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급속하게 추진된 산업화와 공업화가 주민의 생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줬을지는 모르나 생존에 큰 위협을 가해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게 되자 생

8)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안지현의 변화를 보면, 현 전체 생산액은 3.4배, 재정 총 수입은 7.1배, 농민 평균 순수입은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郭占恒, 25)

태문명 건설을 통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 지역을 방문해 이 지역의 발전모델을 칭찬하며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라고 한 것은 안지현의 모델이 향후 중국이 가야할 발전 모델임을 제시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생태문명 건설의 세부 내용

시진핑 주석의 생태문명에 관한 사상은 그가 저장일보 《之江新語》⁹⁾란에 쓴 전체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232편의 글 중에서 19편은 전문적으로 “兩山”사상과 생태문명사상을 말했고 그 중에서 12편은 위(余)춘 현장 방문조사 전에 발표된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는 자각행위에 기대해야 한다〉라는 글에서 “금산은산만 바라고 녹수청산은 돌보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과 방법에 대해 분명히 비판하기도 했다.(郭占恒, 2017: 20)¹⁰⁾

시진핑 주석이 안지현에서 처음으로 “兩山”사상을 발표했지만 이미 그가 푸젠성 성장으로 재임 시 푸젠성을 생태성으로 건설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기도 했다. 그 후 그는 2002년 저장성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생태성(生態省) 건설을 위해 조직을 만들어 녹색저장(綠色浙江) 정책을 추진했다. 그가 저장성으로 옮긴 이후 첫 번째 정책이 생태성 건설이었던 것이다.

2006년 7월 29일, 시진핑 주석은 리수이(麗水) 방문 시 다음과 같이

9) 고정 칼럼 형식의 이 글은 이후 2007년 저장인민출판사에서 《之江新語》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10) 그 외에도 〈GDP도 중요하지만 GDP가 전부일 수는 없다〉, 〈GDP도 중요하고 녹색GDP도 중요하다〉는 글을 통해 경제 발전에서 GDP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생태가 함께 고려되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말했다: “발달이 덜된 지역의 최대자원은 바로 생태자원이다. 이 ‘황금밥그릇(金飯碗)’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금은보화)이다’라는 것을 지역 발전의 지도사상으로 삼길 바란다.”(郭占恒, 2017: 20)

그 후 10년 후인 2015년 3월 24일 시진핑 주석은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생태문명 건설의 신속한 추진에 관한 중공중앙의 의견》을 통과시키며 정식으로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금은보화)”을 중앙문건에 기입했다. 따라서 이 문건은 생태문명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중국의 중요 지도사상이 되었다.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시진핑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중국 고유의 전통사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 사상적 토대는 깊어 보인다. 그는 2013년 11월 당의 제18차 3중전회에서 《몇 가지 중대 문제의 전면적 심화 개혁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해 중국 고유의 전통사상인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생태관계를 신중히 언급했다. 그는 “산(山), 수(水), 림(林), 전(田), 호(湖)는 하나의 생명공동체이다. 사람의 명맥은 밭에 있고, 밭의 명맥은 물에 있고, 물의 명맥은 산에 있고, 산의 명맥은 흙에 있고, 흙의 명맥은 나무에 있다.”고 말했다.¹¹⁾ 그의 천인합일 사상은 장자(莊子)의 자연과 생명 중시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일찍이 장자는 ‘하늘과 땅은 나와 생겨났다(天地與我並生), 따라서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而萬物與我爲一)’(莊子, 齊物編)고 설파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고대 현인의 생태사상을 빌려 오늘날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을 도모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대 자연철학자인 장자의 ‘천인합일’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18차 인민대표대회에서 「당헌」에 기존의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11) 習近平, 關於《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的說明(新華網 2013年 11月 15日)

건설에 ‘생태문명 건설’이 추가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18차 인민대표대회에서 보고된 ‘생태문명 건설 추진’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제시됐다.(조영남, 2013: 140-142) 첫째는 국토 공간 개발의 구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구와 자원 환경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내용인데 특히 국토 관리, 농지의 보존, 해양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원 절약의 전면적인 촉진이다. 여기서는 먼저 생태환경보호의 근본적인 대책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자원 이용 방식의 전환, 에너지 관리 강화, 경지 보호 및 관리의 강화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자연 생태 및 환경보호의 강화이다. 여기서는 크게 토지 황폐화, 사막화, 수자원 및 토지 유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의 구축이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경지, 삼림, 호수, 습지의 면적을 확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네 번째는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제도 강화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경제 발전 비전과 목표, 평가체계를 대폭 수정해 생태문명 건설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경제와 사회 발전 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폐기되다시피 한 ‘녹색 국내총생산(green GDP)’의 개념도 다시 도입해 엄격한 경지 보호, 수자원 관리, 환경 보호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정책이다¹²⁾.

12)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시진핑의 철학과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로는 2018년 7월 6일,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 구이양시(貴陽市)에서 열린 생태문명구이양국제포럼에서의 축사이다. 그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태문명 건설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녹색발전의 생태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사람은 자연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13억 인구 대국인 중국은 그동안 많은 경제성장을 거뒀지만 자연과 환경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녹수청산이 금산은산(금은보화)’라는 것, 생태환경을 지키는 것이 경제 발전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절감, 농경지 관리, 농촌 환

생태문명 건설의 네 가지 정책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통으로 제시된 정책은 농지의 보호이다. 그만큼 농지의 보호는 파괴되어 가는 중국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핵심문제이고 삼농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진핑은 그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파괴되어 왔던 자연 환경(물, 공기, 토지, 산림, 자연자원 등)과 향후 인류 미래에 중요한 문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즉, GDP를 지표로 하는 경제성구가 아니라 이를 대체할 다른 형태의 발전 성과를 요구했고 생태환경이 시장경제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이 과연 전체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지만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중국의 정책 변화는 계속 진행되리라 생각된다.¹³⁾

〈표 3〉 제18차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된 생태문명 건설의 정책 내용

핵심 내용	구체적 내용
국토 공간 개발의 구도 개선	개발의 관리 및 공간 구조의 조정, 농지의 보존, 해양 이익 및 해양 개발
자원 절약의 전면적인 촉진	자원 이용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 에너지 관리의 강화,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의 추진, 수자원 보호와 관리 강화, 경지 보호 및 관리 강화

경 살리기 등을 통해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만들고 이를 시장에서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9년 구이양시에서 시작된 생태문명포럼은 10년 동안 생태문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시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인류문명 공동체를 건설하자”

- 13) 2018년 중국 정부 조직개편에서 환경부는 생태환경부로 개편됐다.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핵심 내용	구체적 내용
자연 생태 및 환경보호의 강화	토지 황폐화, 사막화, 수자원 및 토지 유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삼림·호수·습지 면적의 확대 및 생물 다양성의 보호,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생태문명의 제도 건설 강화	자원 소모, 환경 훼손, 생태 효익을 경제·사회 발전의 평가 체계에 포함시켜 생태문명의 요구를 실현하는 목표 체계, 평가 방법, 징벌 기제의 수립(녹색 국내총생산 ‘green GDP’ 도입 가능) 엄격한 경지 보호 제도, 수자원 관리 제도, 환경보호 제도 수립, 타당한 상태 보상 제도의 수립, 탄소 배출권 등 각종 오염 물질 배출권 시장의 시험 실시, 전 국민에 대한 생태문명 교육 실시

주: 조영남, 2013, 『중국의 꿈』, pp.140-141 재정리. 농지(토지) 보호가 공통으로 포함됨.

3.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법제화

시진핑 주석은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가장 큰 장애로 제도의 미비를 지적했다. 그는 2013년 11월 제18차 3중전회의의 《몇 가지 중대 문제의 전면적 심화 개혁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 생태환경 보호의 문제는 제도의 미흡과 연관되는데 그 원인은 전 인민이 소유하는 전국의 자연자원 자산관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전국의 자연자원 자산관리체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가장 엄격한 제도와 법치를 구현해야 생태문명 건설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확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중국공산당은 제18차 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환경보호법》을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게 수정하고 《생태문명 건설의 신속한 추진에 관한 중공중앙의 의견》을 제정해 배포했다. 이로써 중국의 각 방면에서 환경보호와 생태문명 건설이 법치화, 제도화, 체계화, 일상화의 궤

도에 편입되었다.(郭占恒, 2017: 22)

이러한 법률 개정의 목적은 첫째, 엄격한 법집행으로 환경 훼손 및 파괴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이고, 둘째, 환경 오염과 훼손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손실 보상의 명확화이고, 셋째, 생태환경 보전이 다변화되고 있는 시장경제 체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다. 그래서 생태환경과 경제발전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마련해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전모델이 현재의 중국경제 수준에서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중국의 지방정부는 GDP적 성장이 최대의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 정부에서 더 강하게 생태문명 건설을 주창하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는 작업은 어렵고도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시진핑의 생태문명 건설은 그의 철학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존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시진핑은 2001년 그의 박사논문 서문에 "모든 일 중에 농업이 기본이고 농업이 흥하면 모든 일도 흥한다. 세계 각국은 모두 이 원리를 따른다."(*百业农为本, 农兴百业兴, 世界各国皆同此理*)고 썼다. 이는 농업에 대한 그의 철학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지만 시진핑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혁명의 근거지인 중국 서북부에 거주하면서 그곳 농민의 빈한한 삶을 몸소 체험했고, 이후 젊은 시절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아버지의 정치적 탄압을

목적하고 지식청년으로 자발적 하방을 단행해 산시성의 농촌에 들어가 농민의 비참한 삶을 겪으면서 농업, 농촌, 농민의 삶에 대한 실존적 경험을 쌓게 된다. 중국의 가난한 농촌에서의 이러한 그의 실존적 체험과 이후 허베이성, 푸젠성 등지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실천 경험은 이후 그의 삼농사상 가운데 하나인 농업조직화와 시장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칭화대학 박사논문 『中國農村市場化建設研究』(2001)로 체계화하기도 했다.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그의 깊은 철학과 애정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은 이후 당총서기와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뒤에도 삼농에 대한 그의 사상을 실천해 나갔다. 후진타오 정부부터 시작된 삼농문제 해결에 관한 〈중공중앙 1호문건〉 하달은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시진핑 또한 후진타오 정부의 삼농 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본적으로 후진타오의 삼농개혁을 바탕으로 그의 삼농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앞서 설명했듯이 삼농에 대한 시진핑의 기본사상은 세 가지이다. 강한 농업, 아름다운 농촌, 잘 사는 농업이다. 중국이 강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강해야 하고, 중국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농촌이 아름다워야 하고, 중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기 중화문명의 부흥을 표방한 그의 ‘중국몽’ 실현도 결국은 삼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삼농문제는 여전히 중국의 최대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앞으로도 계속 삼농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대 현안문제로 유지할 것이다.

삼농사상 못지않게 최근 시진핑이 강조하는 것은 생태문명 건설이다. 이는 삼농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삼농문제를 넘어서 근본적 틀을 바꾸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환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간과했던 환경생태의 문제가 이제는 중국의 성장과 생존을 가로막는 절체절명의 장애물로 인식되면서 생태환경과 경제발전이 선순환되는 공존과 상생의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이 아직은 개도국 수준의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생태문명이라는 거대한 전환을 이룩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빠르게 느끼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생태문명에 대한 시진핑의 철학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정책은 경제, 환경, 농업 정책에서 특히 강화될 것이다. 최근 정부부처 가운데 농업부를 농업농촌부로, 환경부를 생태환경부로 개편한 것은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의 생태환경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지 오래다. 세계 각국이 중국의 변화를 지켜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 의심과 한계도 있지만 삼농문제 해결과 생태문명 건설을 실현하려는 시진핑의 의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수, 『시진핑 리더십』(석탑출판, 2013).
- 김용옥,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통나무출판사, 2016).
- 리시광(李希光) 주편, 김용경 옮김, 『중국몽과 소프트차이나』(차이나하우스, 2013).
- 박경철, “후진타오 시기 3농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현대중국학회』, 제16권 제1호(2014).
- _____, “중국 농촌마을 재편의 의의와 한계”, 『농촌지도와 개발』 제22권2호 (2015).
- _____, “1950년대 중국 도농이원구조의 형성과 그 현재적 함의”, 『농촌사회』, 제27권2호(2017).
-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시대의 정치와 외교』, 민음사(2013).
- 허쉐펑(賀雪峰) 지음, 김도경 옮김, 『농민공 문제와 중국 사회: 탈향과 귀향사 이에서』(돌베개, 2017).
- 曾憲祿, 『習近平“三農”思想研究』, 福建農林大學 碩士學位論文(2016).
- 常君麗, 『習近平農民發展思想研究』, 浙江農林大學 碩士學位論文(2016).
- 常君麗·高君, “習近平“三農”戰略思想形成與發展的內在邏輯”, 『中共山西省委黨校學報』, 第39卷 第1號(2016).
- 段蕾, “習近平生態文明思想的生態政治學闡釋”, 『雲南行政學院學報』, 第33卷 (2016).
- 郭占恒, ““兩山”思想引領中國邁向生態文明新時代”, 『中共浙江省委黨校學報』, 第3卷(2017).
- 韓玫, “綠色發展時角下美麗農村建設研究”, 『鄉村科技·三農論壇』, 第9號 (下)(2017).
- 潘高鋒, “關於美麗鄉村建設几点思考”, 『商品與質量』(2015).
- 吳宏耀·羅丹, “用新理念引領農業農村發展”, 『農村工作通訊』, 第3號(2016).
- 王喆芃·李德芝·龐麗鉤, “習近平“三農”思想戰略維度論析”, 『福建農林大學學

- 報』, 第20卷 第5號(2017).
- 習近平, 『中國農村市場化建設研究』, 清華大學 博士論文(2001).
- , “論中國農村市場化進程測度”, 『經濟學動態』(2001.11).
- , 『之江新語: 要跳出“三農”抓“三農”』(浙江人文出版社, 2007).
- , 『之江新語: 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浙江人文出版社, 2007)
- 薛丁輝·郭廣銀, “習近平綠色發展思想研究”, 『求實』, 第2卷(2017).
- 肖玉明, “破解“三農”難題的根本遵循: 學習習近平總書記關於“三農”問題的重要
論述”, 『決策與新息』, 第11號(2016).
- 邢中先·秦琴·曹倩毓, “習近平綠色發展思想研究: 基於習近平總書記的系列重
要講話”, 『重慶理工大學學報』, 第31卷 第1號(2017).
- 閻占定, “習近平“三農”思想研究”, 『中南民族大學學報』, 第37卷 第4號(2017).
- 袁勤飛·徐海敏, “美麗鄉村建設的實踐探索: 館陶經驗”, 『新農村』, 第1號(2016).
- 張紅嶺, “習近平生態思想研究”, 『中共浙江省委黨校學報』, 第6號(2017).
- 趙玲玲·曾力寧, “習近平農業現代化思想研究”, 『長沙理工大學學報』, 第23卷
第3號(2017).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Xi Jinping's *san-nong*(三農) Thought: From Anti-Poverty to Construc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

Park Kyong Cheol(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Urban & Rural,
Culture Research, Chungnam Research Institute

Abstract

After reported formally since the end of the 1990s, the *san-nong*(三農) issues were firstly accepted as a core policy by the government of Hu Jintao. As a result, China's *san-nong*(三農) issues were adopted as the document No.1 of CCP Central Committee during the decade of Hu Jin-tao' s reign since 2003. After that time, Xi Jin-ping, as the successor of Hu Jintao, has also called on the CCP and the State to make efforts to resolve the *san-nong* (三農) issues.

In this paper, therefore, firstly, the background of why he has been so interested in the *san-nong*(三農) issues were examined. Secondly, his values, attitude, and policy directions for resolving the *san-nong*(三農) issues were investigated in detail. Finally, the background and concrete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ecological civilization construction he has insisted on in recent over resolving the *san-nong*(三農) issues were examined.

Key words

Xi Jinping, *san-nong*(三農), agricultural cooperatives, socialism new village construction, ecological civilization